

추천사

해월당 봉려관스님은 제주도민의 삶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잊혀져가던 200여년의 어두운 시간을 걷어내고, 다시금 중생의 삶에 안락을 빛을 열어주신 제주불교의 중흥조요, 민족의 선각자이셨습니다.

관음사, 법화사, 불탑사, 법정사, 월성사, 백련사 등, 주요한 사찰을 여법하게 중창하여 지역주민에게 자애로운 도량으로 선물하고, 여러 선지식을 모셔 메말라 가던 정신의 삶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정법의 물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법정사 무오항일항쟁의 성공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의 보살행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우리시대 호국불교의 선각자이기도 합니다.

탄생 150여 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 후학들이 이러한 소중한 자취를 수집하고 재조명하여, 선명하게 남기겠다는 의지는 매우 뜻 깊은 일로 여겨집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당당히 걸으셨던 스님의 행적은 후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선대의 수승한 인연에 보답하겠다는 깊은 고마움이 담긴 오늘의 성취가 많은 분들에게 향기롭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선대의 공적을 기리는 것으로, 현재의 정진을 성찰하게 하고 앞날의 희망이 환하게 열려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불기2561년(2017) 5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